

근대의 환(등)상인가, 번역인가

김기봉(경기대 사학과)

전진성 교수는 본래 독일에서 유학한 서양사학자인데, 역사학 경계를 넘어 미술과 건축학과 연계하여 문화사를 쓰는 한국에서 독보적인 역사가다. 전 교수는 이미 『박물관의 탄생』과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를 통해 횡단하는 역사가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사라지는 걸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기억과 건축이다. 기억이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는 방부제라면, 건축은 공간에 세워놓는 거다. 기억이 비물질적인 소프트웨어인 반면, 건축은 물질적인 하드웨어다. 시간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축이다. 그래서 기념물과 같은 조형물은 기억을 품고 역사라는 자식을 낳는 산실(産室)로 기능한다. 모든 존재는 공간이라는 자궁 속에서 태어난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죽음이란 공간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진성 교수가 쓴 『상상의 아테네』는 베를린, 도쿄, 서울이라는 세 나라의 수도가 ‘상상의 아테네’를 기원으로 하여 위계질서로 연결된다는 걸 밝히는, 근대 수도의 계보학을 통찰해 낸 역저다. 전 교수는 책의 집필 의도를 “한 나라의 수도를 창조하는 데 있어 특정한 지리적 상상과 결부된 기억 행위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주로 건축적·도시 계획적 재현을 통해 규명” 하는 것이라고 썼다.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서울과 베를린이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은 제국 일본의 수도였던 도쿄를 매개로 하나의 독특한 지리적 상상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 대한 가히 종교적인 동경이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상상의 아테네로 만들었고, 이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일본이 신흥 제국의 수도 도쿄를 상상하는 모델이 되었으며, 중국에는 일제 식민지가 된 조선의 수위도시 경성에까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이 같은 테제를 잘 요약해 주는 표현이 책의 부제 “기억과 건축이 빚어낸 불협화음의 문화사”다.

역사가는 시조인 헤로도토스가 처음 했던 것처럼 문자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망각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의 기념비를 세운다. 하지만 문자로 고정되는 기억은 시간과의 투쟁에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공간성을 갖지는 못한다. 공간성을 가질 때 볼 수 있으며 우리 삶의 장소로 편입된다. 다시 말해 역사적 기억은 건축을 통해 장소에 새겨질 때, 르페브르가 말하는 일상적 삶을 지배하는 ‘생산적 공간’으로 ‘생체권력’을 작동시키는 공장이 될 수 있다.

전 교수 책의 탁월한 업적은 기억의 ‘공간 구속성’을 발굴하는 고고학적 작업을 통해 식민지근대성의 구조를 드러냈다는 점에 있다. 전 교수는 대한민국이 식민지근대성이라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책의 목표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책은 수도 서울의 식민지도시적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모더니티와 식민성의 모순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 태생적 모순을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문회민족주의 논리와 냉전적 반공주의의 창검으로 불식하려 해왔다.”

실제로 모더니티는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을 내재하는 담론권력으로 작동했다. 식민지근

대성은 모더니티가 기형적으로 배태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함축하는 용어다. 식민지근대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멋지고 깊이 있게 수행한 이 책은 말로는 융합연구를 외치면서도 막상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한국 학계에 경종을 울리는 문제작이다.

이 대작이 출간되기까지 전 교수가 겪어야 했던 산고(産苦)는 한국 역사학계는 물론 건축학계조차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척박한지를 너무도 잘 보여준다. 본래 한국연구재단 융합분야 저술지원과제의 성과물이었던 본 저서의 초고는 결과평가에서 출판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건축학과 역사학을 융합해서 전인미답의 도전적 연구를 한다는 게 분과학문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차이와 다양성이 의미로 인식되기 위한 전제가 관용이다. 관용은 역설적이게도 종교전쟁과 같은 극단적 대립의 산물이었다. 차이를 다양성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부정하고 마녀재판을 할 때, 인간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연후에야 유럽인들은 관용의 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역사학은 물론 학문분야 일반에서 다른 시각과 관점 그리고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한 관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토론자는 전 교수의 학문적 깊이를 이해할만한 건축학과 미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 무지는 오해와 실수를 낳는다. 어쩌면 다음에 제기하는 문제는 토론자의 무지가 빚어내는 우문일 수 있다는 걸 미리 고백하고 2 개의 질문을 한다.

첫 번째는 아테네-베를린-도쿄-서울로 이어지는 ‘수도의 계보학’을 전통의 상실로부터 초래되는 근대의 병리학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이다. 아테네와 베를린의 관계를 고대의 부활로 지칭되는 르네상스를 프로이센 식으로 재현한 것으로 보면 왜 안 되는가? 독일은 문명적으로는 서유럽의 변방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통일 국가를 수립한 이후 독일이 유럽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 모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고대 아테네였다. 베를린의 공간을 유럽문명의 고향인 아테네를 상기시키는 건축물로 채움으로써, 근대에 ‘지각한’ 독일의 위상을 만회해서 유럽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했다. 이런 독일인들의 꿈이 히틀러로 이어지는 ‘독일적인 특수성의 길’로 가는 이정표일 수도 있지만, 모든 길이 거기로 통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환원주의적 사고이다.

베를린을 “슈프레 강가의 아테네”로 만든 대표적 건축물이 5개의 박물관이 모여 있는 ‘박물관 섬(Museumsinsel)’이다. 오늘날 그것들이 없는 베를린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베를린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다. 히틀러의 패전 후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통일한 후 수도를 다시 베를린으로 옮겼다. 베를린이 다시 수도로 복귀해서 재건축됨으로써 “2005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디자인 도시(City of Design)’로 뽑혔고,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수도(cultural capital)’로 격찬”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문화적 변용을 전진성 교수가 했던 것처럼 모더니티의 환(등)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베를린-도쿄-서울로 이어지는 근대의 이식을 환(등)상이 아닌 번역의 연속성으

1) 옥영수, 「베를린장벽 역사기념물 만들기: 관광의 풍경에서 기억의 터전으로」, 『역사비평』 116(2016), 288쪽.

로 해석하면 왜 안 되는가이다.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을 “슈프레 강가의 아테네”로 탈바꿈시키는 건축으로 제국의 꿈을 키웠다. 전 교수는 프로이센의 이런 ‘국가 텍토닉’을 일본이 도쿄로 재연했고, 그것의 ‘짜퐁’으로 식민지조선의 경성이 건설됐다는 연속성을 역사학과 건축학의 난해한 이론들을 동원해 증명해 냈다.

전 교수는 번역을 서로 모순되는 2 가지 계기가 중첩되는 과정으로 본다. 한 문화 공동체와 다른 문화공동체 사이에는 통약불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번역은 소위 ‘원본’과 번역된 것 사이에 엄연한 위계관계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토론자가 묻는 질문은 번역을 통해서도 다른 문화 사이의 통약불가능성이 위계질서로 변환되는가, 아니면 문화 사이의 통약불가능성 때문에 번역은 모방이 아닌 창조의 계기가 되는가이다. 근대라는 나무를 이식했는데,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자라나 꽃피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 땅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자가 말하는 대로 읽는 독자가 읽는 반면, 저자를 죽이면서 읽는 독자도 있다. 드 세르토의 말대로, 읽기란 기본적으로 ‘소비적 생산’을 하는 과정이며, 이로부터 생겨나는 ‘창조적 오독’이 전 교수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라고 토론자는 믿는다.

알고 보면 모든 새로운 문명은 이식과 번역으로부터 발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번역과 모방을 두려워하면서 타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 분명 근대의 기원, 정확하게는 르네상스의 기원인 아테네란 모더니티가 만든 환(등)상’이다. 환(등)상’은 꿈꾸는 환상으로부터 연원한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갖는 환상일 뿐이다.” 이 말은 사실을 직시해서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주지만, 그런 환상이 없다면 삶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는 게 우리 삶의 진실이다.

모더니티의 기원과 원형을 상징하는 한에서 근대란 ‘환(등)상’이라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른바 기원과 원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냈던 차이의 의미들을 드러낼 때, ‘기원의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수도의 계보학을 통해 근대의 위계질서보다 역사가가 더 중요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이 장소적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가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라고 했을 때, 그런 연결을 하는 지점이 바로 장소다. 이 같은 장소적 번역을 통해 문화의 접변(acculturation)과 횡단(transculturation) 그리고 융합(fusion)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인류 문명사의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헤테로토피아’란 이런 차이의 해방공간을 인정하고 허용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환(등)상이 아니라, 그 같은 ‘창조적 오독’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 곧 의미와 무의미다. 고백하자면, 토론자는 전 교수의 이 어려운 책을 다 읽지 못했고, 읽은 부분도 제대로 이해했다는 자신이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나와 전 교수는 통약 불가능한 개체다. 인류 역사는 이런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갈등과 접변으로 새로운 문명이 출현함으로써 문명사의 진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토론자는 위에서 열거한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교수가 꿈꾸는 ‘헤테로토피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